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 도전

내년도 유네스코 최종 신청대상 선정

전북도는 지난 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이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최종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7월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이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최종 신청 대상에 선정된 후 연이어 올

해 3번째로 선정된 것이어서 전라북도도 세계유산의 보고(寶庫)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것은 2018년도에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등재 신청서를 제출(문화재청→ 외교부→ 세계유산센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2018년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2018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를 거쳐 2019년 6~7월경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은 2019년에 고창갯벌(자연유산), 정읍 무성서원(문화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세계기록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 8개를 보유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세계유산을 최다 보유 하게 되어 전라북도는 당연히 세계유산의 보고(寶庫)로 발돋움 하게 된다.

전라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은 “세계유산은 2019년 부터는 문화자연유산을 통합, 국가별로 1건만 제출 가능하므로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과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이번에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대상에 선정된 만큼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 등재신청서 및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9년에 3개 유산이 모두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언



유 후보자는 “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며 “대체복무 제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피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남북 대치상황을 보면 형사 처벌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줄지 않고 있고 자기 양심 때문에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삼성에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중은 3년 6개월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중은(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3년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장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편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영수특검 활동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한 바 있는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공범’으로 본 이들의 재판 결론을 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마친 후 함께 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피고인들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있다.

/뉴시스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훈장을 수훈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37위를 대전국립현충원에 영현(죽은 이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을 안장하는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봉안·안장식’이 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현화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영현 합동봉안

6.25전쟁·베트남전 참전 호국영령 37위 안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오영수)는 8일 전주 화산실내체육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 국가유공자 영현 37위를 합동봉안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 큰 전공을 세우고 훈장을 수훈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를 위해 대전

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동봉안식에서 안장되는 유해는 국가유공자 30위, 배우(配立) 7위 등 37위이며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을 널리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더욱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추도사에서 “호국영령들께서는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로 대한민국에 자유와 행복의 등불을 밝혀 주셨다”며,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내 장애인 올림픽 경기장 사전관람

국민연금공단, 25명에 배뉴투어 프로그램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7, 8일 이틀간 전북 지역 장애인 25명에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치러질 경기장을 사전관람하는 ‘배뉴투어(venue tour)’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여행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이웃과 함께 떠나는 공감여행을 전국적으로 80회차 진행해왔으며, 이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모든 행사에는 안

전을 위해 참가자마다 봉사자 1인이 동행했다.

배뉴투어에 참여한 장애인 청소년 김모(18)군은 “내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을 볼 수 있어서 신난다”고 공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삼민 기자

文대통령, 인니로 출국... 7박8일 동남아 순방

10일까지 인도네시아 방문

김부겸·추미애 등 환송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동남아 첫 순방지인 인도네시아로 떠나며 순방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 서울 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까지 1박2일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공행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와 환송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에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시각이 계획보다 15분간 늦어졌다.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국빈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을 앞둔 시점이여

서 예우 차원에서 출발을 늦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순방 이튿날인 9일에는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칼리바타 영웅묘지에 현화할 예정이다. 양국 주요 경제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도 계획돼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카르타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방산·인프라·경제·통상 및 실질 협력 증진, 북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ASEAN)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